

헝가리에서의 나의 하루

2022.10.27(목) 작성자: 손세린

06:30

지금인 아침 6시 30분. 나는 매일 아침 이때 일어나는다. 7시 45분까지 등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날은 늦잠을 자서 7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ㅎㅎ

07:30

집에서 나와 학교에 등교!! 우리집은 학교에서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린다. 야호>< 나는 보통 걸어서 가거나 킥보드를 타고 간다

08:00~12:30

오전 수업시간이 시작된다. 오늘은 오전에 영어, 자연, 미술, 수학 수업이 있었다. 이 사진은 미술교실 사진과 미술시간에 찍은 내친구 펀니의 사진이다.



12:30

드디어 학교시간. 사실 나는 학교를 좋아한다. 그런데 오늘은 수업이 가장 적은 날이어서 4교시 후에 집으로 간다. 오늘은 친구 2명을 집으로 초대했다. 왜냐하면 내일 할로윈 파티가 학교에서 있을 예정이어서 친구들과 우리집에서 할로윈 파티 준비를 하기로 했다.



14:30

우리집에 놀러온 친구 펀니와 나는 학교에 남아있는 동생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야해서 우리는 헤어졌다. 그리고 나는 집에서 혼자 피아노 연습을 했다. 아참, 그 전에 오랜만에 한국에 살때 친구였던 푸름이와 피아노 학원에서 친하게 지냈던 지인이 언니와 카톡 메시지를 교환을 했다.



15:00~17:00

나는 일요일에 두번 음악학교에서 피아노를 배운다. 오늘은 피아노 수업이 있는 날이어서 음악학교에 다녀왔다.

18:30

우리집은 보통 6시쯤에 저녁밥을 먹는다. 아버지가 이시간에 퇴근해서 집에 오시기 때문이다. 오늘 저녁밥은 삼겹살을 양배추에 싸서 먹었다. 그런데 사진을 못찍었네 —

21:30

오늘은 저녁밥을 먹고 동생 율동화를 사러 배화점에 다녀왔었다. 그리고 간식을 조금 먹은 후 양치를 했다. 내일 학교 갈 가방도 미리 다 싸놓았고 이제 잠을 자러 갈거다. 오늘 나의 하루 끝~

